



산업분석 | 은행

Analyst

박혜진

02 3779 8634

oashes@ebestsec.co.kr

은행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_ '18 12 월

12월 원화대출 연체율 0.40%(MoM -20bp, YoY +4bp) 기록

2018년 12월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20bp 하락, 전년동기대비로는 4bp 상승하였다. 12월 분기말이자 연말이기 때문에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4.4조원으로 '18년 11월 대비 300%증가하였다. 때문에 차주별 전체 연체율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말 정리된 연체채권 규모가 커 전체 연체채권 잔액은 11월 9.6조원에서 12월 6.5조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차주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에서 연체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94bp 나 감소했으며 중소기업도 -18bp 하락하였다. 대기업대출은 2018년 4월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효과가 정상화되고 있다. 당월 신규연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총 1.6조원의 연체채권 상각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성동조선해양에서만 1.4조원의 상각이 이루어 졌다. 따라서 연말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연말 평잔기준인 1.35%를 크게 하회하는 0.73%를 기록하였다. 중소기업 연체율도 11월까지 점진적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연말 연체채권이 정리되면서 0.5%미만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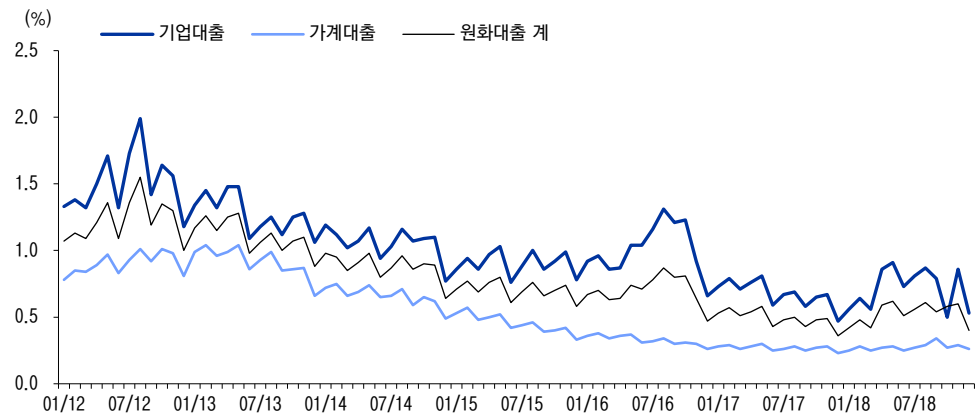
가계대출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다. 가계대출 전체 연체율은 0.26%로 평잔 기준인 0.28%를 하회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은 0.18%, 일반신용대출은 0.43%로 마감했다.

분기말이자 연말, 대규모 상각으로 안정세 기록

분기말이자 연말이라 대규모 연체채권이 정리되면서 전반적인 연체율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특히 12월 신규연체채권규모는 1.3조원으로 6월 1.1조원을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정리된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하며 은행의 건전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최근 금감원은 매크로 환경의 변동성 심화, IFRS9 Stage2 등 보수적인 총당금을 적립하도록 은행들에게 요구한 바 있는데 이는 전체 연체율을 더욱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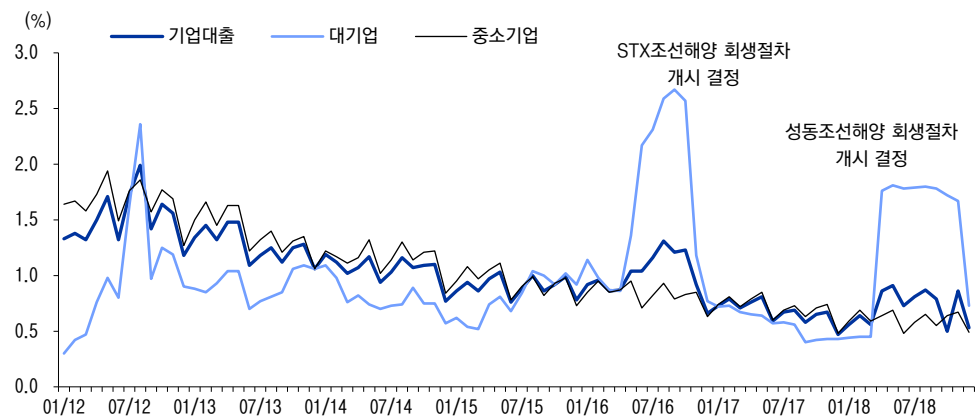
2019년 1월까지 공개된 COFIX 금리는 우상향추세다. 잔액기준은 2%를 넘어섰다. 주택매매지수는 2019년 1월 들어 소폭 하락한 상황이다. 하지만 7월부터 시행될 변동기준 COFIX로 대출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연체율은 아직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다.

그림1 국내은행 원화대출 차주별 연체율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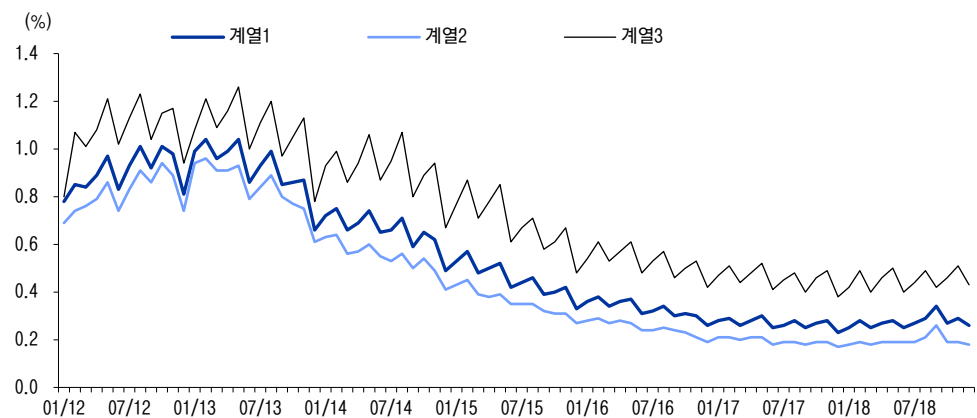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기업대출 연체율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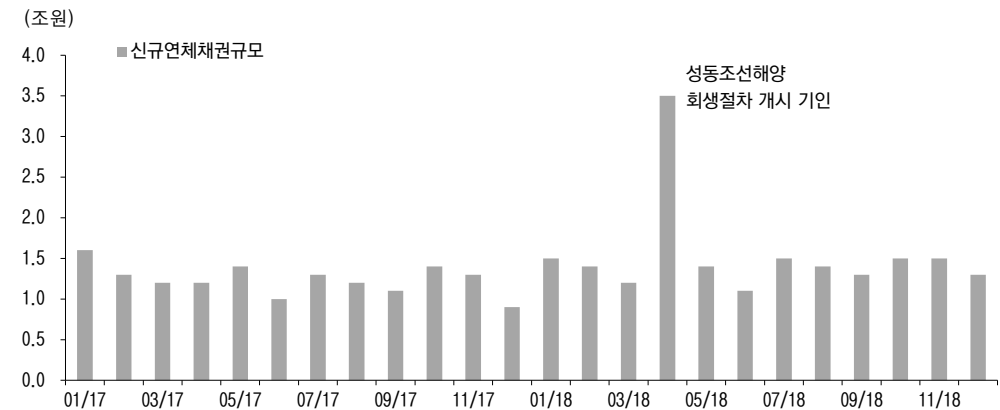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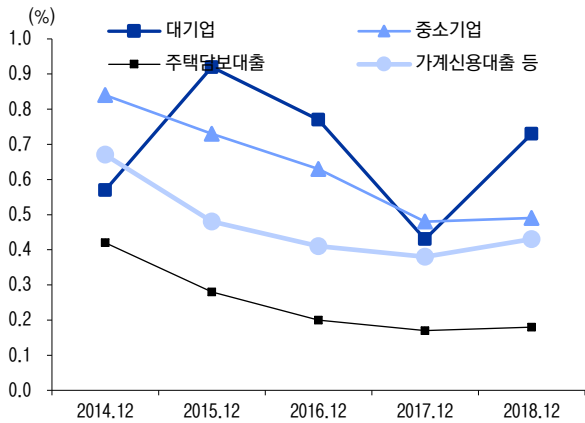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신규연체채권 월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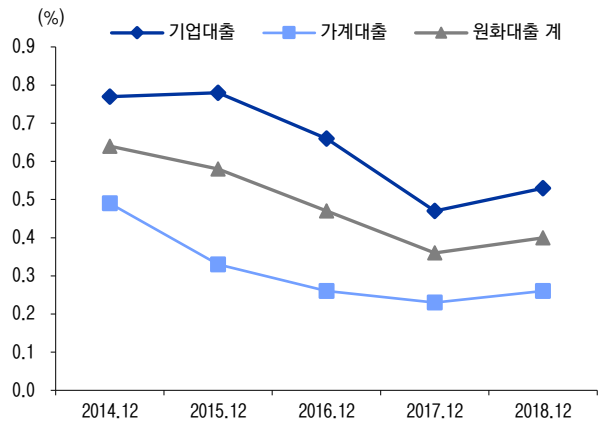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원화대출 최근 5년간 월별 대출 연체율 현황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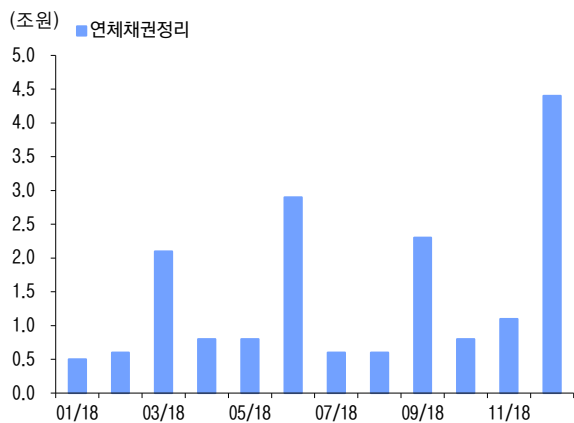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원화대출 최근 5년간 월별 대출 연체율 현황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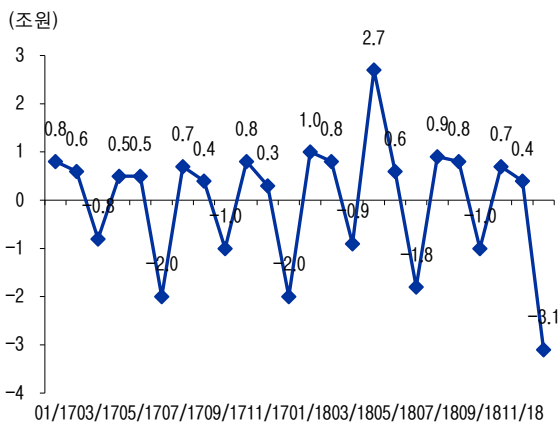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기존연체채권 정리규모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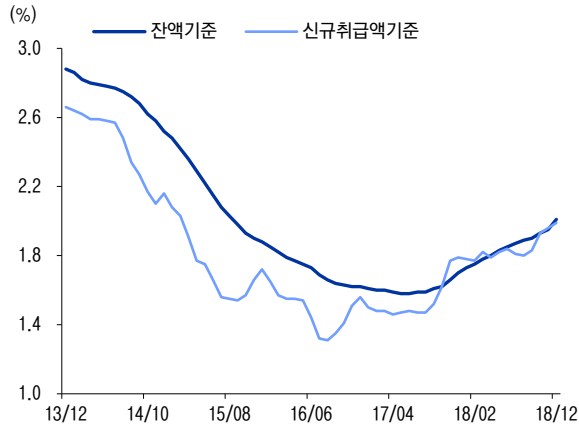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신규연체채권-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감액 월별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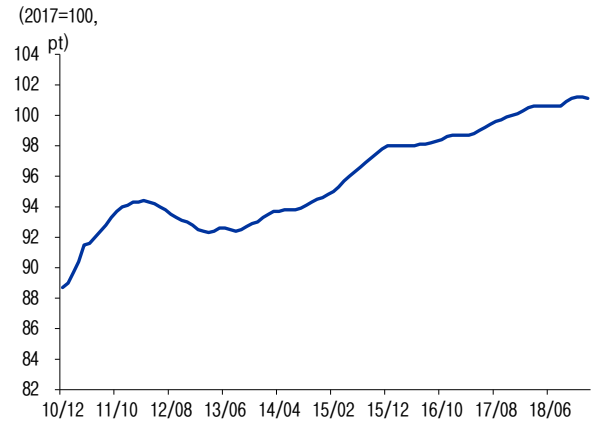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COFIX 금리 추이



자료: 은행연합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전국 주택가격 매매지수 추이



자료: 한국감정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원화대출 차주별 상세

(%, bp)	2017.12	2018.11	2018.12	MoM	YoY
기업대출	0.47	0.86	0.53	-33.0	6.0
대기업	0.43	1.67	0.73	-94.0	30.0
중소기업	0.48	0.67	0.49	-18.0	1.0
가계대출	0.23	0.29	0.26	-3.0	3.0
주택담보대출	0.17	0.19	0.18	-1.0	1.0
가계신용대출 등	0.38	0.51	0.43	-8.0	5.0
원화대출 계	0.36	0.60	0.40	-20.0	4.0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혜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6.4% 3.6%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20%에서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18. 1. 1 ~ 2018.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